

1.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열매(1)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 장 19-24 절

1. 성령의 열매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은 정말로 변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숙이란 단어를 사전적으로 정의해보면, “인생의 각 시기에 기대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갓난 아기일 때는 그에 걸맞는 용알이와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생이 되면, 그 시기에 걸맞는 언어나 행동을 기대합니다. 모든 부모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몸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행동이 함께 커지는 것, 그게 성숙이란 말입니다.

헌데 아쉽게도 성인이 되었음에도, 언어와 행동이 어린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덩치는 큰데, 생각은 유치합니다. 먹는 음식은 성인의 음식인데, 말은 유치원생 수준입니다. 입는 옷은 엑스라지인데 행동은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 성인-아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미숙한 존재라고 하지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미숙한 존재가 성숙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변화와 성숙이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속 사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통해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성숙되어야 하는지, 그 열매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2.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살펴보기

오늘은 그에 앞서서, 총론의 차원에서 성령의 열매가 어떤 맥락에서 제시된 것인지, 본문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이유로 성령의 열매를 제시하고 있는지 공부해 보자는 말입니다.

1.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를 위해 갈라디아서라는 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 보면 바울의 서신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주장은 바울의 가르침과 많이 달랐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완성하려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편의상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그릇된 주장으로 인해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이 왜곡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긴급하게 편지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상당히 강한 어조로 경고와 비판과 호소가 담긴 글을 쓰게 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3. 율체의 일

사실,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인데, 거기에 다른 덧붙일 말이 필요합니까?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예상하면서 답을 합니다. 만약 율법이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윤리적인 안내를 받고 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왜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율법이 필요한가, 그 이유는 오직 율법만이 경거망동하는 사람들의 충동을 제어하고 훈련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법이라는 것이 없다면,

회사에 규칙이 없다면,

공동체에 정관이 없다면,

나라에 헌법이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고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도록 안내를 받겠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단 모이면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규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회칙을 만들고, 정관을 만들고, 표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있어야만 어떤 조직이든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1.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문제가 명확하게 되었죠. 16 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반론에 대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보다 정확하게는 “성령을 따라 걸으라”라고 가르칩니다. 그 길을 걷게 되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해법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걷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타락한 인간이 자기중심성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 문제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성적인 문제, 우상숭배와 같은 영적인 문제, 공동체를 깨뜨리는 시기 질투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는 주장입니다.

4.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렇다면 바울의 반론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상 육체의 충동을 제어할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있다고 해서 육체의 죄악을 제어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에 수 만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아무리 많아도 범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쳐 납니다. 법과 관련된 일을 다루는 판사 검사 경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죄인들이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매일 죄인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고 해도, 죄를 지으려고 하는 육체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주장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7 장 24 절에서 그게 우리 존재의 비참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1. 성령을 따라 행하라

곤고하다는 것은 비참하다는 의미입니다. 오호라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그럼 이와 같은 내적 분열 상태,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예 자기 자신을 죄악에 내어 놓고 사는 것입니다.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사는 것입니다. 아예 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사실상 죄의 종이 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 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세요. 죄가 아담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죄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너질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아담의 상태 혹은 육체 아래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하나님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옛날 다리 밑에 살던 거지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즉 신분은 변화되었는데 아직 옛날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다리 밑에서 살다가 왕궁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이사를 왔는데, 왕궁에 어울리는 삶이 아니라 과거 다리 밑에 살던 모습을 그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만찬을 준비해주었는데 손으로 게걸스럽게 먹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 침대를 준비해 주었는데, 기어이 바닥으로 들어가서 웅크리고 자는 겁니다.

5. 성령의 열매

왕자와 공주로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다리 밑 거지의 습관을 따르면 육체의

1.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등으로 나열합니다.

바울은 이와 대조적인 성령의 열매를 제시합니다. 거지의 습관이 아닌 왕자와 공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면 놀라운 지혜를 얻습니다.

첫째, 육체의 일들은 아주 여러가지를 언급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단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둘째, 열매는 작은 씨앗이 자라나 나무가 되고 그리고 맺히는 결실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인간의 소관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은혜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씨앗이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셋째,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 성령의 은사와 구분이 됩니다.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은사는 일종의 기계가 작동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자동차를 오랫동안 세워 두었다가 시동을 걸면 어떻습니까? 바로 시동이 걸립니다.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을 믿고 바로 주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성숙하기를 소망한다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누구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는 과정에서 더욱 귀한 하나님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우뚝 서는 복을 누리길 축복합니다.